

대학생의 효에 대한 인식과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and Family Values in College Students

배문조, 박세정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Moon-Jo Bae(moonjo@ync.ac.kr), Se-Jeong Park(sezzi721@ync.ac.kr)

요약

본 연구는 대구시내 대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효의식, 효도이유 및 가족가치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효의식은 전체 대학생 모두 평균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효의식을 보여주었고 효도 이유에 대해서는 희생, 애정, 동정, 재산상속에 대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은 전체 대학생 모두 다소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남녀간의 차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보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하위변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부모친밀감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공감형성과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으로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다.

■ 중심어 : | 효의식 | 효도 | 가족가치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gender on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in undergraduates. The researched were 155 male and 176 female students in Daegu.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son of filial piety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mily values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Finally, the variable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family values were gender, awareness of emotion supporting, financial supporting, physical supporting, and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 keyword : |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 Filial Piety | Family Values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노인 부양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

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유지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효의식이다. 효는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부양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치로써,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효사상을 존중해 왔으며, 이러한 효에 바탕을 둔 가족부양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관계를 통해 심리적 유대감과 성격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행동 양상 역시 가족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며 자기가 속한 1차 집단의 특성에 의하여 가치, 태도, 습관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성인인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수용하게 되므로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의 성장 발달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3]. 가족은 인간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족에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지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3]. 특히 개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가치관의 유형이 세상에 대한 한 개인의 견해를 예측해 낼 수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4].

그러나 가족을 통해 형성되던 가치, 태도 등이 가족 이외의 사회적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에게 예전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가족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간의 공간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생활형태도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5]. 이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내재되어 온 효의식과 가족가치관 또한 서구화 산업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효의식과 가족가치관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다[3][6-8].

이밖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하는 여러 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양육을 대신해 주는 보육시설 또는 교육을 대신해 주는 학교와 같은 기관들의 존재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곧 부모의 혹은 가족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가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가치관은 현재 젊은 세대들과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자녀의 세대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높고 청소년 세대는 우애주의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나고[9], 기성세대는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신세대 또는 청소년세대는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10][11].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태도의 급격한 변화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최근에 효의식[6][9][12]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13-16]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가족가치관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가치관의 변화[17-19], 세대 간의 가족가치관이나 가족개념에서의 차이[20-23]를 살펴본 연구가 다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효의식을 살펴봄과 동시에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고령사회의 주인공이 될 이들이 어떠한 가족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효의식

효사상은 유교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백행지본으로 존중해 왔으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총괄적인 윤리체계를 한마디로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는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부양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치로써,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 효를 행하는 형태와 정도는 산업화 이후 서구 문화 그리고 현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효와 현대적인 효가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행 방법의 차이를 뜻하거나[24] 노부모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실천 방법 차이를 뜻하고 있어 효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유용한 가치로 내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은 효의 의미를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 ‘자손, 자식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자녀들은 ‘부모마음을 편하게 헤드리는 것’, ‘부모 말 순종’이라고 보고했다. [26]은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를 행동지향적 효(희생, 책임성, 보은), 정서지향적 효(가족조화, 애정/사랑, 존경), 가족지향적 효(가족의 영속과 체면유지) 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현대적인 효 의미를 구체화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효행의지가 높고, 연령이 젊어짐에 따라 효행의지가 약해진다고 밝히고 있다[6][26].

효의식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27]은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전통적 효는 교육수준, 직업, 출생순위, 가족구조 등에 상관없이 인식되고 있지만, 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들은 부모 지향적인 효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효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27]. 또한 부모 부양행동에 관련된 주된 요인으로 효의식[28]이라고 보고되었고,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직업, 소득수준,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와의 친밀감정도, 출생순위, 부모의 건강상태 등[29][30]이 제시되고 있다. 효의식과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2. 가족가치관

가치는 특정한 행동 유형 혹은 존재의 궁극적 상태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한다[4]. 개인의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 주는 개념이다[32]. 또한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갖는 바람직성의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념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보인다. [33]은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 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심

리적 요인,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가치관은 가족 형태 및 크기, 가족 내 인간관계 등을 통한 가족 구성원간의 제반 행위의 방향이나 양식 또는 태도를 형성하므로 가족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가족 가치관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미래의 생활 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여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기본적 태도를 성립해 주는 개념이다[3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35]의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은 평균 3.14(5점척도)로 전반적으로 가족중심적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공경의식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제자매 및 친척간의 사회경제적 유대 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3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평균 2.65(5점척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 가치관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살펴본 변인으로서는 성차를 들 수 있다. 남자들은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하며 부모부양의식, 가(家)의식, 혼인의식 등 전통적인 가족주의 성향을 보인 반면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가족주의 성향을 보였다[14][37-40].

연령과 가족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40-42]. 또한 출생순위도 가족가치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20][43]. 이와 같이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유교적 전통가족의 가치관을 근간으로 Shirter(1976)가 말한 근대가족의 중심적인 가치인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모성애(maternal love) 그리고 가정중심성(Domesticity)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상실,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그리고 등지로서 가정의 해체라는 탈근대적 가족가치관도 혼재되어 있다[44].

이러한 시기에 가족주의가치관은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적 원리로 부모 부양의식과 관련이 되는 기본

가치를 형성하는 이념으로[36] 부모부양의식이 가족가치관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어떠한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미래사회의 가족을 예측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효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효도이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성별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연령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부양의식(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부양부담감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8. 부양보상감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9. 부모친밀감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내 대학생 400명에게 2008년 3월 25일부터 2008년 4월 20일 사이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4월 25일까지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 설문자료를 제외하고 331부를 연구목적에 따라 자료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155명(46.8%)이고 여학생이 176명(53.2%)이며 23세 이하가 161명(48.6%), 24세 이상 170명(51.4%)이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 t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효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26]의 효척도 12문항을 이용하였고, Cronbach α 는 .72 였다. 가족주의가치관을 측정하기위해 [45]의 척도를 기초로 [46]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는 가족우선성 3문항, 부계가문영속화 4문항, 부모공경의식 2문항, 가족유대의식 3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Cronbach α 는 .76 이었다.

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47]과 [48]을 참고로 한 척도로 경제적 부양 5문항, 정서적 부양 5문항, 서비스 부양 5문항 총 15문항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Cronbach α 는 .85, .74, .80이다. 부양보상감은 7개 문항이고 부양부담감은 9개 문항으로 [49][50]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51]이 제작한 것으로 각각의 Cronbach α 는 .71과 .86이다.

부모친밀감은 [52-54]등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로 총 10문항이며 Cronbach α 는 .84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효의식

남녀 대학생들의 효의식을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들의 효의식

효의식	전체	남	여	t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	3.20 (1.07)	3.17 (1.09)	3.23 (1.05)	.50
부모의 건강이 안 좋을 때 자녀는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4.56 (.62)	4.55 (.64)	4.57 (.61)	.19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4.06 (.71)	4.11 (.72)	4.02 (.70)	-1.18
자녀가 성장한 후에 부모 가까이에서 산다면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	3.88 (.96)	3.81 (.97)	3.94 (.96)	1.22
먼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전화나 편지를 해야 한다.	4.01 (.97)	3.87 (1.01)	4.13 (.92)	2.44*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4.28 (.75)	4.34 (.77)	4.23 (.73)	-1.28
전 체	4.00 (.57)	3.98 (.58)	4.01 (.57)	.55

*p<.05

효의식은 전체 대학생 평균 4.00이며 남학생은 3.98, 여학생은 4.01로 모두 중앙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높은 효의식을 보여주었다. 하위문항별로 남녀 차이를 보면 '번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 전화나 편지를 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차이를 보여 여학생(M=4.13)이 남학생(M=3.87)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전화나 편지를 통한 안부를 전하는 행위가 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여성들이 언어표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과 휴대전화와 같은 소통을 위한 기기의 발전은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교류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 간의 소통 방식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세대가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가족유대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효도이유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생들의 효도이유

효도이유	전체	남	여	t
존경	3.58(.87)	3.65(.91)	3.52(.84)	1.35
희생	3.06(.96)	3.20(1.00)	2.94(.93)	2.48**
책임	3.95(.78)	3.98(.83)	3.91(.74)	0.76
보은	3.47(1.03)	3.46(1.11)	3.47(.97)	-0.06
가족영속	3.32(.96)	3.37(1.00)	3.28(.94)	0.79
애정	4.21(.79)	4.08(.79)	4.32(.79)	-2.84*
동정	2.71(1.07)	2.44(1.08)	2.94(1.02)	-4.38***
종교 교의	1.98(.98)	2.02(1.02)	1.94(.96)	0.70
가족 화합	3.65(.93)	3.61(1.00)	3.69(.88)	-0.72
재산 상속	2.34(1.01)	2.45(1.15)	2.25(.87)	1.76*
이웃 화합	3.10(1.06)	3.08(1.09)	3.11(1.04)	-0.25
가족 체면	2.27(.90)	2.26(.99)	2.28(.83)	-0.26
전체	3.13(.50)	3.14(.44)	3.13(.50)	.120

*p<.05, **p<.01, ***p<.001

대학생들이 효도하는 이유를 보면 애정(M=4.2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부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책임(M=3.95), 가족화합(M=3.65), 존경(M=3.58), 보은(M=3.47) 순이었으며,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았던 효도

이유는 동정(M=2.71), 종교적 교의(M=1.98), 가족체면(M=2.27) 및 재산상속(M=2.34)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적 교의나 가족체면 및 재산상속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효행이유로 나타나 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 남의 눈을 의식해서 효를 행한다거나 물질적인 것에 대단한 가치나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식간 유대관계와 부모의 재산과의 관계를 살펴본 [5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녀의 방문 횟수가 줄어든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효도이유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추후연구에서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해 본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효도이유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희생(남 M=3.20, 여 M=2.94), 애정(남 M=4.08, 여 M=4.32), 동정(남 M=2.44, 여 M=2.94), 재산상속(남 M=2.45, 여 M=2.25)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남학생은 부모를 위한 경제적, 육체적 희생과 재산상속 때문에 효도를 한다고 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동정 때문에 효도를 한다는 응답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를 위한 육체적인 도움을 드리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희생을 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6]은 한국인 남녀 9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발달과업을 행하는데 있어 성차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과업지향적이고 여성의 경우 관계지향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아 남성의 경우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 보다 과업지향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효를 행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과업지향적인 경제적, 육체적 희생을 효라고 여기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애정 표현을 통한 보다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서지향적인 행위를 효라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효도이유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결혼생활 안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행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남성은 부양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해드림으로서 효를 실천하고 여성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효를 실천할 것이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2. 가족가치관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

		전체	남	여	t
가족 가치관	가족 우선성	2.87 (.73)	2.93 (.78)	2.81 (.69)	-1.39
	부계가족 영속화	2.65 (.77)	2.83 (.80)	2.50 (.70)	-3.97***
	부모 공경	3.34 (.75)	3.26 (.77)	3.42 (.72)	1.89
	가족 유대	2.69 (.67)	2.90 (.60)	2.51 (.67)	-5.56***
전체		2.75 (.54)	2.89 (.54)	2.62 (.51)	-4.68***

****p<.001

가족가치관 점수는 전체 대학생은 평균 2.75이며 남학생은 2.89, 여학생은 2.62로 모두 중간점인 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오늘날 대학생의 변화된 가족가치관을 알 수 있다. 남녀간의 차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가설3이 채택되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이라는 연구[16][20]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계가족영속화와 가족유대의식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부계가족영속화(남 M=2.83, 여 M=2.50)와 가족유대의식(남 M=2.90, 여 M=2.51)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의 친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좀 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조사한 [57]의 연구를 보면 여학생은 양성성인 그룹이 가장 많은 반면 남학생

은 남성성 그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다 평등지향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는 여성의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는데 남성의 가치관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성역할 평등과 부부평등을 지향하는 여학생들의 가치관과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 남학생들에게 보다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마련되어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가치관							
	가족 우선성		부계가족영속성		부모공경		가족유대	
	B	β	B	β	B	β	B	β
성별 1)	.022	.015	.275	.179**	-.129	-.086	.382	.284***
연령	.035	.116	.028	.089	.003	.011	.005	.019
경제적 부양	-.092	-.075	-.185	-.145*	-.120	-.096	-.062	-.056
정서적 부양	.255	.209**	.056	.044	.183	.147*	.008	.007
서비스 부양	.157	.125	.148	.113	.234	.183*	.044	.039
부양 부담감	-.012	-.011	.037	.030	.159	.133*	-.028	-.027
부양 보상감	.032	.025	.306	.225***	.087	.066	.167	.140*
부모 친밀감	.204	.170**	.201	.160**	.308	.252***	.098	.089
F	8.214***		8.864***		10.884***		5.818***	
R	.169		.180		.213		.126	
R ²	.149		.160		.193		.105	

1) 0=여성, 1=남성
*p<.05, **p<.01, ***p<.001

먼저 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들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 가설 6, 가설7, 가설8, 가설9는 채택되고 가설5는 기각되었다. 가족가치관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우선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정서적 부양(β =.209)과 부모친밀감(β =.170)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대학생일수록 가

족우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가족을 우위에 두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이라는 [2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일관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겠다.

부계가족영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양보상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beta=.225$), 다음은 성별($\beta=.179$), 부모친밀감($\beta=.160$), 경제적 부양의식($\beta=-.145$)으로 나타났다. 즉 부양에 대한 보상감을 크게 느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모와 친밀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계가족의 영속성에 대한 가치관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교육기회의 확대 및 취업증가로 성역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인데 반해 남성은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장남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을 낳는 중요한 이유는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이다.'와 같이 부계가족을 영속화하는 것을 여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와 친밀한 사람일수록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부양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부계가족영속화가 높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아직 대학생이므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양의식이 낮을 수 있고, 경제적인 것과 별개로 부계가족 영속화를 위해서 대를 잇는 것과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과도출을 위해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공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친밀감($\beta=.252$), 서비스 부양의식($\beta=.183$), 정서적 부양의식($\beta=.147$), 부양부담감($\beta=.13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친밀감이 높을수록, 서비스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이 클수록 부모공경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서비스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를 부양함에 있어 부담감을 느낄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부모가 시키는 일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284$)과 부양보상감($\beta=.140$)순이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양보상감을 크게 느낄수록 가족유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만약 형제자매 중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갚아주어야 한다.'와 같은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 여전히 여성에게는 출가외인이라는 얘기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한 생식가족만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결과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양보상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족유대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인해 자신이 받게 되는 경제적 도움 및 칭찬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족에 대한 유대의식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남녀대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효의식과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효의식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00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효도이유에서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육체적인 도움과 경제적인 원조를 하기 위한 효도가 높게 나타나 행동지향적인 효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도를 하고 있

어 남학생보다 정서지향적인 효의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효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각 대상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가족가치관 점수는 전체 대학생은 2.75이며 남학생은 2.89, 여학생은 2.62로 모두 중간점인 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보다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높지만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낮기 때문에 전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하위항목 중 부모공경을 제외하고 모두 3점이하로 나타나 과거의 가부장적이고 가족우선적인 가치관이 오늘날의 대학생에게서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의 대학생의 부계가족중심의 가족가치관의 탈피는 미래사회의 가족이 보다 평등지향적으로 변화할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으므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친밀감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일수록 가족을 우선시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공감형성과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으로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효의식과 가족가치관을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자녀간의 관계 및 부모와 자녀의 효의식과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노인의 건강과 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함께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저하된다고 볼 때[58], 부모의 질환유무 및 정도에 따른 변수를 고려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효의식 척도와 효도이유 척도를 현대사회에 맞게 보다 정확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마다 다르게

이용되는 효의식을 한국인에게 맞게 표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E. E. Maccoby and J. A. Martin,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983.
- [2] 최점화, 청소년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3] 조소연, 오윤자,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271-284, 2001.
- [4] 한상암, 정덕영,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pp.447-452, 2006.
- [5] 장인협, 우국희, *케어·케어메니지먼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6] 성규탁,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 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제15권, 제1호, pp.1-14, 1995.
- [7] 모선희, “효윤리의 현황과 과제 : 대학생의 효의식을 중심으로”, 노인사회정책연구, 제16권, pp.63-84, 2000.
- [8] 박영란, *뇌졸중 환자가족의 부담감과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9]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부양의식의 세대 차이와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243-261, 2005.
- [10] 박임옥, *중학생과 부모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차이에 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1] 조성남, 윤옥경,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학회논문집, 제5권, pp.103-135, 2000.
- [12] 남정숙, *청소년들의 부양의식에 따른 세대차이와 부양결정 변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3] 한은주, 김태현,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회지, 제14권, 제1호, pp.84-94, 1994.
- [14] 박수현,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5] 김경란, 김경신, “가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pp.133-149, 2009.
- [16] 김진희, “남녀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주의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99-510, 2010.
- [17] 김정옥,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신라대학교 학술논문집, 제8권, pp.293-306, 1980.
- [18]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조사*, 1996.
- [19] V. L. Bengtson, *The problem of generations: Age Group contrast continuities and social change*. In Bengtson, V. L and Schaie K. W.(Eds.), *The course of later life*. Springer, 1989.
- [20] 김경신,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10호, pp.145-160, 1998.
- [21] 고정자, “가족개념인식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제12권, pp.5-17, 2004.
- [22] R. J. Harris, “The examination of effects of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generation on familism and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11, pp.173-193, 1980.
- [23] V. L. Bengtson, N. E. Cutler, D. J. Mangen, and V. M. Marshall, Generation, cohorta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 Bimstock & E. Sanana(eds.). *Handbook of aging and th social science*, Van Nostrand Reinholt. 1985.
- [24] 고영복, “사회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17권, 제1호, pp.25-40, 1983.
- [25] 임종권, *한국노인의 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5.
- [26] 성규탁,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제14권, 제1호, pp.50-68, 1994.
- [27]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 “한국인의 효 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6호, pp.387-403, 1996.
- [28] 이보현, *청소년의 효의식과 부양의식이 부모 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9] 서소영, *신세대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30] 손서희,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친밀감에 따른 부양행동 및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1] 윤현숙, 류삼희,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층과 장년층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3호, pp.177-194, 2005.
- [32] 강숙자, 고정자,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25-36, 1996.
- [33] 황길웅, *한국청소년의 가족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34] 강숙경,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pp.85-95, 1992.
- [35] 송근자,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6] 최정혜,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6호, pp.55-69, 1997.
- [37] 김명자, 이윤정,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 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 pp.154-162, 1995.
- [38] 옥선화, “90년대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생활의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3차 총회 및 학술대회자료집, 1998.
- [39] 이은경,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호, pp.45-65, 1999.
- [40] 유계숙, 유영주,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5호, pp.79-94, 2002.
- [41] 서정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42] 신수진,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43] 김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과 안동지역의 주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44]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45] 옥선화, “가족주의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주의척도 제작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제3호, pp.143-153, 1986.
- [46] 이은경, 한경순,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호, pp.45-65, 1999.
- [47] 이은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48] 김용순,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49] 조병은, 신화용,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딸 며느리와 노모관계”, 한국노년학, 제12권, 제2호, pp.83-98, 1992.
- [50] 김송애,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pp.303-322, 1991.
- [51] 신수진, 성인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52] 임춘희, 분가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의식 유형-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53] 유은희,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54]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55] 정재기,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국제간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인구학회, 제30권, 제3호, pp.157-178, 2007.
- [56] 조은영, 정태연,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4호, pp.833-853, 2005.
- [57] 오윤희, 박영숙,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pp.22-28, 2006.
- [58] 홍정민,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5-30, 2012.

저 자 소 개

배 문 조(Moon-Jo Bae)

정희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가정학석사)
- 2006년 2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관계, 노인, 다문화 교육 콘텐츠

박 세 정(Se-Jeong Park)

정회원



- 1998년 2월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아동이상 및 복지전공(문학석사)

- 2008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학, 보육 및 교사 교육 콘텐츠, 정보 교육